

# '제주 북핵 대응 전략화'... 도내 정치권 들쭉

## 내년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 확정 제주도·제주TP, 새해 1월 중 참여기업 모집 시작

### 오 지사, 즉각 반박 기자회견 "당장 폐기하라" 촉구 야 "국힘 제주도당 책임" vs 여 "정쟁 비화 말라"

국민의힘이 제주도를 핵무기 전략 도서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논의를 해 온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즉각 입장문을 내어 반박했다. 도내 여야 정당 역시 이 사안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7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와 도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내용"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보고서를 당장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오 지사는 '여당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보고서 채택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제주를 전략적인 핵배치 요충지로 만들겠다는 내용"이라며 "제주와 도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내용으로, 있을 수도 없고 검토조차 없어야 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오 지사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번 보고서 채택에 앞서 제주를 아예 군사기지 섬으로 만드는 방안이 여당 내에서 논의돼 왔다는 것"이라며, 보고서 채택에 앞서 국힘 북핵특위 위원장이 지난 10월 주최한 '북핵위기대응 세미나'를 언급했다.

오 지사는 이 자리에서 발표된 '제주도 전략도서화와 전략군' 제언을 인용했는데, 해당 발표자료에는 '제주도에 향후 핵전력을 운용할 전략군과 해병 제3사단을 창설하고, 기지방어사령부, 스텔스비행단, 제2기시일사령부, 제2잠수함사령부, 제2기동함대사령부 등을 설치'하자는 공식적인 제언이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특히 제2공항이 군사공항으로 활용된다면 건설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며 "국민의힘 특위에 명단을 요청하고 진위를 확인해야 하며, 여당 내부에서 어느정도까지 정부와 협의했는지 등에 대해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내 정치권에서도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보고서 내용을 미리 인지하고서도 오늘에 이르렀다면 제주도민의 기대를 저버린 행태이며, 인지하지 못했다면 중양과 긴밀히 소통했다는 말은 다 거짓말인 것인가"라며 "제주 현안을 가지고 정쟁화에만 혈안이 돼 몰두하지 말고, 진정 제주도와 도민의 평화를 대변하는 일에 책임을 다하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제주도당은 "국민과 제주도민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와 집권여당에 대해 제주도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작태를 당장 멈출 것을 경고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알려진 논의가 완전한 오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가장 마지막으로 입장을 낸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제주도 전략도서화 등의 내용이 담긴 언론 보도는 100% 오보"라며 "한기호 국회의원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해본 결과, 언론을 통해 나온 제주도 전술핵 배치 내용의 문건은 최종보고서



오영훈 지사가 2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제주 북핵 대응 전략 도서화' 논의에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 제주도당(사진 가운데)과 국민의힘 제주도당도 공방을 이어 갔다.

가 아니며 특히 보고서를 채택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또 "하나의 해프닝에 불과한 일을 확실한 팩트 조사 없이 개인의 의견 차원에서 한 말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 현실화할 것처럼 그야말로 정쟁의 도구로 활용한

오영훈 지사와 민주당 제주도당의 행태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이어 "오영훈 지사와 민주당 제주도당의 대도민 분열 시도에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개방형 전기차 충전요금 내년부터 인상 도, 1kWh 당 292원에서 320원으로 조정

내년 1월 1일부터 부터 제주도가 320원으로 인상된다. 구축한 개방형 전기차 충전기의 충전요금이 현재 1kWh당 292원에서

이 폐지되고 전기요금 상승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와 민간충전사업자는 지난 1월부터 충전 요금을 인상한 바 있다.

도는 전기차활성화심의위원회를 거쳐 각종 소비자 물가 상승에 따른 도민 가계 부담을 고려해 제주도가 구축한 개방형 전기차 충전요

금을 올해 인상 없이 유지하고 내년부터 인상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지역 개방형 충전기는 총 5733기로 제주도 627기, 한국전력 525기, 환경부 316기, 민간충전사업자 4265기가 운영되고 있다.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열람 공고

-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율리 600-12번지 일원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신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농어촌정비법 제104조,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일반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2. 관계 도서는 열람정소에 비치하고 있으나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종료 후 5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2. 2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의 개요
  - 1)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명칭: 제주 라프 농어촌관광휴양단지
  - 2) 위 치: 제주시 조천읍 선율리 600-12번지 일원
  - 3) 면 적: 196,991㎡
  - 4) 사업비: 약150억원
  - 5) 사업 시행기간: 2023. 12. ~ 2024. 12.
  - 6) 주요도입시설 - 따로 불임
- 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시행자: 농업회사법인 경덕 주식회사 대표 이희구
- 다. 열람기간: 2022. 12. 28. ~ 2023. 1. 11.(14일간)
- 라. 열람장소: 제주도청 친환경농업정책과 (문의전화 064-710-3152)

## 2023년도 서귀포시 신년인사회 안내

계묘년(癸卯年) 새아침에 서귀포시민의 안전을 기원하고 화합을 위한 서귀포시 신년인사회를 개최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다 음

- 일시 : 2023년 1월 1일(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한라홀

- 주 최 : 서귀포시
- 주 관 : 서귀포정방라이온스클럽
- 문 의 : 서귀포정방라이온스클럽 (☎ 010-4444-2165)

※ 초청장 등 개별 통지는 생략합니다.

서귀포정방라이온스클럽 회장 오동욱

## 5년 "우수훈련기관 지정" 전액 무료 내선전기실무 및 전기기능사 자격증 취득 과정

- 대 상: 실업자/재직자/영세사업자 졸업예정자/휴학생 등 대부분 가능
- 교육기간: 2022년 12월 28일 ~ 2023년 7월 24일
- 교육시간: 09:00 ~ 16:00, 1일 6시간 (주5일 교육)
- 교육내용: 전기 내선공사 및 소방 통신설비
- 문 의: 064-749-3434

취업처 다수확보 전액무료(90% 취업률 달성) 전과정 기능사실기 합격률 95% 달성

주식회사 제원직업전문학교 jejujehwon.com (신제주 은남동 버스정류소 앞) T. 064-749-3434 ※ 본 과정은 고용노동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으로 진행합니다.

## 토 지 구합니다

· 제 주 시 · 구좌읍 조천읍

- 조 건
  - ① 전원주택용 부지
  - ② 허가득한 사업부지
  - ③ 계획관리지역

베네건축 베네하우스 문의: ☎ 064-723-1105